

tbs교통방송 인터뷰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2016.04.26.)

국민의당이 현 안철수, 천정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죠. 또 전당대회를 이렇게 연말까지 연기한 취지와 함께 국민의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립정부 논란, 또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방식 문제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죠. 유성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유성엽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국민의당이 원래 전당대회를 언제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유성엽 : 지금 당헌규정에 의하면 2월 2일 날 우리가 창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니까 8월 2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김만흠 : 그러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면 당헌을 고쳐야 하겠네요?

유성엽 : 고쳐야 되겠죠. 당헌을 고쳐야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김만흠 : 네. 고치면서까지 연말에 하기로 한 배경은 뭘니까?

유성엽 : 글썽요. 아직 그 부분은 어제 이제 중진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고, 오늘 저희들 당선자들 포함해서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다. 1박 2일로. 거기서 최종 실질적인 결론을 내야 할 것인데요. 어쨌든 가닥은 연기하는 쪽으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치르기에는 물리적인 여건,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을 바라봤을 때 당 내부의 전당대회를 하기보다 국회를 대비해서, 특히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국회에서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한테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력이 정기국회 대비해서 집중될 수

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대를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 가는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총선 같은 선거가 있다면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를 유지, 확산,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은 뭔가요?

유성엽 :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아니면 무슨 전술적 측면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라, 그래서 모든 일자리 문제라든지 민생문제라든지 복지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내라, 이걸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경제난 해소 대책, 해결 대책 이것을 제시해나가는 것이 당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지금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민들의 경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성엽 : 글썄요. 아직은 충분한 모습을 우리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할 거 없이 아직 총선이 끝나자마자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목표를 두고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어느 당이 더 노력을 해가느냐, 쉽게 말해서 경제 분야에 특히 집중을 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누가 제시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내년 대권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국민의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조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적인 지지를 견인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유성엽 :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내지는 아까 정당투표의 결과, 지역구 의석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전혀 저는 그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는. 두 번째는 과연 전당대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후자 쪽에 좀 의견이 많이 모아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거죠.

김만흠 : 그러면 유성엽 의원께서는 지금 이후에 국회, 20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유성엽 : 뭐 저는 제가 성격이 원칙론자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는 물리적으로 어렵더라도 뭔가 바짝 준비를 하고 또 통상적인 전당대회 방식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을, 이를 테면 전당원 전자투표제 같은 방식으로 당 대표라든지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헌에 정해진 것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고 지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김만흠 : 어제 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겠네요?

유성엽 : 저는 그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나 당이라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수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다수의 저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또 제 생각에도 그러한 의견들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전당대회를 막 무리하게 8월 말까지 하기보다는 뭔가 좀 연기를 하면서 당력을 경제살리기, 또 민생챙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민생을 살리려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성엽 : 그렇습니다. 물론 입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법에 물론 근거를 두지만, 꼭 법에 그대로 내용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입법 정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에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해서 경제 정책이 명백하게 실패했거든요. 자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경제난이 심각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보다 경제여건이 안 좋은 때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법률을 떠나서라도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김만흠 : 네. 어쨌든 간에 국회 경우에는 개별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까만 당 전체를 꾸려가는 원내 지도부의 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성엽 : 아주 그게 국회를 대비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전당대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전대를 지금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내 전략을 이끌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들도 의견조율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원내대표 이번 20대 첫 국회에서의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에 여야 양당 체제가 아닌 이번에 3당 체제, 그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의 역할 제대로 하려면 정말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유성엽 :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좀 심사숙고를 해서 좋은 분을 원내대표로 우리가 삼아서 정말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회를 살려서 지금 위기 상황,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저는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성엽 의원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정책적인 결과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겠지만 그것은 또 국민의당의 존재의 이유, 다당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못하면 오히려 야권 분열이니 뭐니 이런 비판적 요소가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유성엽 : 지금 현재 뭐 국민들께서 꼭 다당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한테 38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3당 체제로 다당제가 형성되었는데 과거의 국회 사례를 봤을 때 다당제 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오히려 양당제 하에서는 싸움만 하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내지 못한 경우들이 다반사였는데 다당제 때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당제가 꼭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총선 민의 결과 다당제가 만들어졌고, 또 다당제 때 과거에 아주 생산적인 일을 했던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단순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국회에서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합의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등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다당제가 아주 유효하게, 의미 있게 작동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만흠 :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 활동에서 원내대표 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과거의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박지원 의원이 맡아 주면 어떻겠느냐, 추대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보니까 유성엽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유성엽 :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이나 경륜이나 능력이나 당 내의 상징성으로 보면 박지원 전 대표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 분이 맡으면 아마 잘 해낼 것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들을 보면 박지원 전 대표님에 비해서 까마득한 후배들이거든요. 그 후배들과 협상테이블에 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다당제 하에서는 무엇보다 3당 간의 원만한 대화와 협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과연 출중한 능력이나 경륜, 역량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런 3당 간의 원만한 조율, 타협, 협상이 과연 잘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저는 그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을 지향한다고 하면 저는 좀 새롭게 어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결정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당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부분으로 몰고 가는, 합의의 틀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국민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또 장차 원내대표가 됐을 때 3당 간에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만흠 : 네. 유 의원께서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셨죠?

유성엽 : 저는 뭐 현재까지는 그래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워크숍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만흠 : 국민의당 어느 분, 또 일부에서 이른바 야권통합론에 대해서는 시대가 지난 이야기다, 하면서 연립정부 이야기를 꺼냈는데 무슨 이야기 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유성엽 :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은 물론이지만 그 연립정부 이야기가 나올 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것이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에서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임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당이 또 누가 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준다면 저는 그 정당이, 또 그 정당의 후보가 내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통합이네, 연립이네, 거론하는 것은 아주 시기상조고, 아주 좀 소극적인 그런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이 정당 체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 때까지 경쟁하는 모양새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성엽 :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각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성엽 : 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